

## Death of the [external] Church

By [Harold Camping](#) [Korean translation by [Zin Yi](#) / Download Acrobat pdf ]

### 외부교회의 종말

해롤드 캠핑 저

성경은 현세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날 큰 영적 사건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말세로 곧바로 이어질 대 환란 기간임을 드러낸다.

*마태복음 24:21 "이는 그 때에 대 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29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 대환란 기간은 마태복음 24:22에서 볼 수 있듯 두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마태복음 24:22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 대환란 기간은 마24와 막13뿐 아니라 계13, 단7, 8, 또 많은 다른 구절들에서 묘사된다. 이것은 요시아(왕하22)의 죽음이 있었던 609 B.C.로부터 메데인들과 페르시아인들(바사 사람들)이 바벨론을 정복한 539 B.C.까지의 70년 기간으로 예표(상징)된다. 이것은 이방 신들이 숭배된 산당(山堂, high places)들을 제거하지 않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레26:30에서 경고하셨었다.

*레위기 26:30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형상들을 베어내고, 너희의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던질 것이요,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리라."*

또 이 경고를 겔6:3-4에서 반복하셨다.

*에스겔 6:3-4 "말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칼을 너희 위에 가져와서 너희의 산당들을 멸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케 되고 너희 형상들이 부서지리라. 또 내가 너희의 살해된 자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지리라."*

마24:21의 대환란이 두 기간으로 나누어졌듯 렘25, 대하28, 또 다른 구약의 구절들이 말하는 70년

## Death of the Church

의 환란기간 역시 두 기간으로 나누어졌었다. 이 첫 기간은 609 B.C.(요시아의 죽음)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전멸된 587 B.C.까지이다. 둘째 기간은 바벨론의 손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바벨론 유수(Babylonian captivity)기간인 587 B.C.에서 539 B.C.이다.

609 B.C.에서 539 B.C.까지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절대적인 지배아래 있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을 때 이들은 성전도, 거룩한 도성도, 또 제사장직도 없었다. 이들은 완전하게 예루살렘과 이전에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로부터 떼어놓아졌었다.

이와 같이 마24에서 읽을 수 있는 대환란의 성격은 사탄이 교회들 가운데 자리잡았으며 성도들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것이다. 계13:7은 말씀한다.

**요한계시록 13:7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단7:25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다.

**다니엘 7:25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단8:11-12에서 성경은 선언한다.

**다니엘 8:11-12 "정녕,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도다.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과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반대케 하며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하였더라."**

계11에서 성경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계11:7에서 다음을 읽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 11:7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587 B.C.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전멸됐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시 산당들로 말미암아 전멸될 것임을 나타내신다. 고후10:4-6은 말한다.

**고린도후서 10:4-6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켜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교회의 "high places"는 성경에 충실하지 않으나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교리들이다. 이러한 교리들 중 신앙고백서들 내에 깊이 새겨져 있는 몇몇도 있으나 그 외에도 잘못된 교리들이 가르쳐지고

## Death of the Church

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규율의 왜곡의 예로써 음행으로 인한 이혼이 들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이 영구적으로 그 high places들을 없애버리려 하지 않았듯이 오늘날 교회들과 교파들은 신앙고백서들과 교리적 가르침들에서 성경에 충실하지 않은 교리들을 제거하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11:7과 고후10:4-6은 교회의 일이 끝나는 때가 올 것임을 가르친다(계11:2). 교회의 복종이 이루어졌으며(고후10:6), 이어서 교회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음과 마찬가지로이다.

솔로몬이 죽은 931 B.C.로부터 요시아가 죽은 609 B.C.까지 이 322년이라는 기간동안 하나님께서 유다의 high places를 관용하신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를 통하여 교회의 high places를 관용하셨다. 많은 교회들과 교파들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오류 절무(絶無)한 말씀이라고 고집하면서도 성경의 진리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대신 인간의 여러 교리들에 집착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마24의 대환란은 609 B.C.에서 587 B.C.까지 기간사이의 예루살렘의 파멸로 예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나 이스라엘이 high places를 없애지 않음으로 전멸됐듯이 세계 각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찾을 수 있는 신약의 이스라엘 역시 대환란중 전멸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교회들의 이 전멸됨은 계11:7, 또 고후10:6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1:7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고린도후서 10:6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데후2:3-4는 이렇게 말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3-4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마24:15-16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신다. (시121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도망해야한다는 것임을 가르친다)

**마태복음 24:15-16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상당히 중대한, 믿는 자마다 대면해야 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마24:21의 대환란 기간이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역사의 그 시점가운데 살고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대환란의 성격을 열거하는 구절들은 솔하나 우리가 그 마지막에 도달했음을 특히 명백히 하는 두 구절들이 있다. 마24:24에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교회사의 그 어느 때에도 오늘날 볼 수 있는 이적들과 기사들, 기적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지금 온 세계에서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있다. 이 증거 하나로도 바로 대환란 기간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증거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뒤로 넘어짐이다. 이 기적을 실행하는 교회들은 이 현상을 "영의 죽음(영에서의 죽음)"이라고 한다. 이 기적은 계13에서 예고됐다. 계13장 전장은 대환란 기간을 묘사한다. 13절을 보자.

**요한계시록 13:13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위로 내려 오게 하더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 있는가? 계시록 13:13에서 성경은 짐승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과연 이 구절은 언젠가 사탄이 문자 그대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가? 필자는 이 현상이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제의하겠다. 물론 이것은 문자 상의 불이 아니며 대신 하늘로부터 불을 불려 내림과 동등한 활동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성경을 찾아보기로 하자.

사탄이 그의 사자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위협한 유력한 두 가지 예에서 악한 자들을 멸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음을 볼 수 있다.

열왕기하 1장에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오십부장과 오십 인을 보냄을 얻을 수 있다. 믿는 자들을 향한 사탄의 총공격을 맞아 신자들을 상징하는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불려 내렸으며 오십부장과 그의 오십 인은 멸살 당한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사탄이 땅의 사방 나라를 모아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한다.

또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강습하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멸했어야 되었던 적이 있었다. 대신 사탄을 불로 멸살 시킬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다른 조치가 행동으로 취해졌으며 그러므로 그 행동은 하늘에서 불을 불려 내림과 동등해졌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고 유다와 성전의 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였다(요18). 사탄 자신도 그 이전에 유다에 들어갔기로 무리 중에 있었다(**눅22:3 "그때 사탄이 열들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사탄이 상당한 중심을 차지했기에 요한 6:70-71에서 예수께서는 유다를 마귀라고 부르신다. 예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고 유다와 성전 군관들에게 물어보셨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답했으며 거기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내노라'고 말씀 하셨다.

바로 그 순간,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행동과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악의 권력에 대한 행동을 따라 그분을 결박할 원수들을 하늘로부터 불을 불려내려 멸살 시키셨어야 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행동을 취하실 수 없었으며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라고 선언하셨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야 하는 것이었다. 오직 그러셔야만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박에 응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잡혀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이셨으나 이적의 무리를 멸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을 불려내시는 대신 '내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서 땅에 넘어지도록 하셨다('fell to the ground', *epeson chamai*-엎드러짐이 아님). 이것은 불을 내림을 대신한 행동으로서 그들을 멸하실 권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다.

계시록 13:13을 통해 우리는 사탄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다는 것을 배웠으나 성경은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가르친다. 왕상 18:20-46에서 벌어진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사이의 대결을 기억해 보자. 사탄을 그 우두머리로 둔 바알의 선지자 450인은 하루 내내 그들이 만든 제단 위에 불이 내리기를 빌었으나 그들의 노력은 완전 실패였다. 그와 반대로 엘리야는 그가 쌓은 제단에 불을 내리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까지 소멸했다.

그러므로 사탄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릴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결박하러 온 이들을 불을 불러 내리심의 대행(代行)으로서 뒤로 넘어지게 하실 때 사탄은 참석해 있었다. 이것이 계시록 13:13절의 예언의 해답이다. 사탄은 어떤 초자연적 능력 아래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림과 동일한 현상으로 사람들을 뒤로 땅에 넘어지도록 한다. 오늘날의 거짓 복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으로 어떤 초자연적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뒤로 넘어진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영의 죽음 당함"이라고도 부른다. 사탄 자신은 사실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 내릴 수 없기에 이의 대행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람들을 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뒤로 넘어짐의 기적은 우리가 계13과 마24의 대환란 기간 가운데 있음에 대한 뚜렷한 증거이다. 또 하나의 놀랄 만한 증거는 우리가 대환란의 둘째 부분에 있음을 보여준다. 마24:22의 단언을 기억하자.

***마태복음 24:22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 될 것이라."***

계7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44000명이 그 이마에 인(印)침을 받은 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대환란에서 나와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이 144000이 신약시대동안 교회들의 활동으로 구원될 그들의 '완전한 가득 참'(complete fulness)임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계 11과 고후10:6에서 배웠듯 교회들의 일이 끝난 때가 오게된다. 이미 보았듯이 이 때는 대환란의 시작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후에 큰 무리가 구원받게 된다. 계7:9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절은 흰옷(white robes)으로 옷 입은 이들이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임을 가르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의미심장하게도 세계인구가 폭발하고있는 역사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참복음이 온 세계에 포고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셨다. 이것은 복음이 라디오, 통신위성, Internet을 통하여 전파됨에서 특히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계사 그 어느 때에도 대륙 전체가 복음의 산하(傘下)에 위치되었던 적은 없었다. 전혀 교회의 권위아래 있지 않으며 가능한 한 성경에 충실하려는 Family Radio와 같은 전도단체에 의한 이 현상을 목격하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 그 대환란 기간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일어날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맞닥치게 되는 현실적이면서도 곤란한 문제는 이것이다. 만약 아직 어느 정도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존재하거나,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있다면 그곳에 남아있어야 되는가? 성경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는가? 사실 믿고 가르치는 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 보이는 교회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했을 때 고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재검토 해야한다. 렘29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명백한

명령들을 내리셨다. 16-19절은 말한다.

*예레미야 29장 16-19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과 이 성읍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너희와 함께 사로 잡혀 가지 아니한 너희의 형제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을 알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같이 그들을 만들리라.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주와 놀람과 경멸과 모욕이 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일찍 일어나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 구절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려하지 않은 자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단언한다. 사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었으며 그 무리를 이끌던 이들은 살인됐다. 이 후로 이 남은 이들 (remnant)은 애굽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아무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이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관리아래서 포로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용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혀 도움이나 인도를 받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눅21:20-24에서 선언하신다.

*누가복음 21:20-24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때가 가까워 줄 것이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니,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그 날에는 아이를 뱀 사람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것을 겪을 때라고 하시지 않고 그 상황을 볼 때라고 하고 계심을 주시하자. 예루살렘이나 유대는 모든 신약 교회들과 교파들을 상징한다. 우리가 오늘날 보듯 온 세계의 교회들을 향한 사탄의 총공격을 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나가야한다(depart out).

이것은 대환란과 동일시되는 표현이다. 눅21:20-21과 같은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렘29에서 예루살렘에게 명하신 같은 지시를 내리시는 것이다. 이것은 곧 예루살렘에서(교회에서) 나가라 라는 명령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의 영적 권위아래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하나님으로 복음전도에 사용되는 시대를 마치셨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려 하실 때 롯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지시를 받았듯이(창19:17) 우리 역시 산들로 도망해야 한다. 산, 또는 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되심의 표상이다(시121:1). 중요한 것은 계11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이 끝났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을(교회들) 소돔과 애굽이라 부르신다는 것이다. 더욱 뜻깊은 점은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주제를 다루실 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눅17:32)라고 하신다. 그녀는 도망을 거부했으며 결국 심판에 처해졌다. 우리가 그 경고를 렘29:16-19에서 보았듯 587 B.C.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려 한 백성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메시지는 명백하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우리 자신을 떼어놓아야 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신 문맥에서 눅17:31을 읽을 수 있다.

*"그 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지붕 위'(housetop)는 복음을 전파함과 동일시된다. 눅12:3을 보면,

**누가복음 12:3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나 빛 속에서 듣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되리라."**

집(house)은 교회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회에 심판이 내려질 때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교회밖에 머무르며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슬픈 상황에 대하여 사3:6-8에서 표현하신다.

**이사야 3:6-8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옷이 있으니 우리의 치리자가 되어서 이 파멸을 네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나 그 날에 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빵도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하리니 이는 예루살렘이 파멸하였고 유다가 몰락했음이라.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주를 거슬러서 그의 영광의 눈을 격노케 하였도다.**

교회시대의 종결로 오래 전 사데 교회가 죽은 것과 같이(계3:1) 교회들은 죽었다. 계2에서 그들의 첫 사랑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에베소 교회가 받았듯이 오늘날의 교회들의 촛대는 옮겨졌다.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임명된 대표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기관)나 신적 유기체(divine organism)가 아닌 것이다.

그 신앙고백(서)을 더욱 성경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할 교회를 오늘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이하게 여길 것이 없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뜻하고 행하도록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교회에 촛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 장로들과 집사들은 성령님 대신 자신의 생각에 이끌림 받게되는 것이다.

눅21:5-6에서 성경은 말한다.

**"몇 사람이 성전이 얼마나 우아한 돌들과 예물로 단장되었는가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그 날(들)이 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

이 성전 건물들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기간동안 지으실 교회들과 회중들을 상징한다. 이 영적 성전의 일부분이 되는 자들은 금, 은, 보석, 또 나무, 짚, 그루터기이다(고전3:12). 이 뜻은 이들이 참 신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회중마다 이 대성전의 완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신다. 이것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 될 것이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만약에 어떤 회중이 모든 high places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성경에 가능한 만큼 충실하려 노력한다고 가정하자. 이 회중은 여기서 자신이 아직 존재하는 그 성전의 작은 부분이라고 고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하셨으므로 이 회중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회중은 그 어느 교회든지 더 이상 성전의 일부분일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시대 이후의 신자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있다. 히10:25를 보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모이는 것'("assembling")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성경의 다른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 구절은 데후2:1이며 같은 단어가 '모이는 일'("gathering together")로써 번역됨을 본다. 그러나 이 모임은 '그 앞에 모임,' 곧 마지막날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모임으로써 오직 구원받은 자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오직 참 신자들에게 적용된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교회들 가운데는 소수의 참 신자들이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으로 이용되는 기관으로써 교회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일요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이날은 영적인 일들을 위한 날로써 지속된다. 그러나 안식일은 더 이상 외부적인 기관으로써의 교회에 집중하지 않는다. 대신 이날은 영원한 교회, 믿는 자들로 구성된 영원체(永遠體, eternal body)에 집중한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이것이다(마16:18).

교회에 관한 이 정보를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교회시대가 끝났다면 교회에 몸담은 신자들은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눅21:20-24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이나 가족이 교회의 정식 member인 경우 탈퇴하여 주일에는 그 누구든 마음이 맞는 이들과 친교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탈퇴는 교회로부터 파문 선교의 절차를 시작하도록 할 수 있겠으나 교회시대의 종말, 또 그렇기에 교회에 전혀 신적 권위가 없음을 확신하게된 이에게는 이것이 큰 타격이 아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교회에 참석하나 정규member가 아닌 경우에는 출석을 중단하고 교회 밖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과의 친교를 계속할 수 있다. 만약 어떤 회중이 이 명에 순종하려한다면 이들은 교회의 회중이 아닌 신자들의 친목으로써 재조직 할 수 있다. 장로, 집사, 목사의 직책은 무효로 된다. 더 이상 회중 위에 영적인 권위를 가진 개인들은 없는 것이다. 이 재조직에 반대하는 member들은 다른 회중 가운데서 membership을 요청할 수 있다.

교회로부터 완전히 탈퇴하는 것은 상당히 사적인 결정이다. Family Radio의 그 어느 교사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것을 명할 권위는 없다. 롬29와 눅21:20-24와 같은 모든 구절들을 신중히, 기도와 더불어 공부한 후 각자 자신의 마음을 정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교회가 단체적 기관으로써 더 이상 영적 권위가 없으며, 그러므로 각자 하나님 앞에 직접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GoodMessage.org](http://GoodMessage.org) For Christian Bible Information

Version#1001 Date: 12-12-2001